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재벌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이
러저러한 찬반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이 먼저 운을 띄웠
고 이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현재 구속
중인 재벌 기업인의 사면에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총리는 “기업
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날 만큼
엄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표
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9일 임환수 국
세청장이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중
소기업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세정지원방안’을 내
놓았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위로는 기
업인 사면론을 따우고 아래로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필자의 식견으
로 말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사회정의

의 차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따라서 정의는 사회가 추구해
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치
덕목이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기본
권이 보장되고, 사회구성원이 서로 신뢰
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따
라서 정의의 실현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공공선을 구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
해 함께 어깨동무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
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한 예로
2010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를 보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 평가에
서 무려 73.6%가 불공정한 편이라고
보고 있고, 공정한 편은 24.1%에 불과
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불
만이 매우 높으며, 일반인으로서의 상상
하기 어려운 ‘황제노역’에 분노를 터트
리고 있는 현실이다. 계층의 양극화와
부의 세습 문제를 집중 거론한 ‘21세기
자본론’을 지은 피케티(T. Piketty)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가에 대한
사면론이 사회 통합에 큰 악영향을 미치
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사회정의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로 나눌 수 있다. 사면론은 교정적 정의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교정적(矯正
的) 정의는 잘못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재벌사면 사회통합 악영향

법적정의 없으면 사회 흔들려

바른 경제 통해 서민 살리길

공정했느냐에 대한 기준이다. 이것은 법
적 정의로 실현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되뇌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용어는 우리의
법적 정의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사람
들은 편법을 쓰게 되고 사회 규범은 흔
들리고 분열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
치 분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재벌

기업가에 대한 사면이 혹 경제 살리기
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일반 서민의
가치 박탈감에서 나오는 패배는 어떻
게 하라.

그리고 왜 한국 재벌 기업은 인플레이
션에 따라 그렇게 좌우되는 허약한 존재인가
되묻고 싶다. 지금의 재벌 기업 총수들
은 창업 2세대 또는 3세대의 세습 기업
인이다. 그들의 신상 변화에 따라 회사
가 흔들리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다면 경
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스티브 잡스는 가도 애플은 건재하다.
그만큼 스스로 자기조직화(self-
organization)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
추어진 회사라 하겠다.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고 활용해서 감옥에 갇는데 경제
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
니 우리의 처지가 너무 빈궁스럽게 느껴
진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곧 사면될 것
으로 예상된다. 재벌 일반 서민의 아픔
을 알고 바른 경제를 통해 경제 살리주
기를 그래도 소망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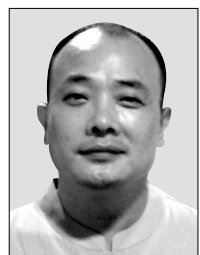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국군의 날과 병영문화

올해 잇달은 병영 사고로 흥역을 겪은 대한민국 국군이 변하고 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 병영문화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위문활동을 강화하는 등 혁신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군문화 혁신에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 갖자



올해로 건군 66
주년을 맞는 우리
국군은 근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어려운 시
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가 돼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극복해 한층 더 성장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잇따른 군사사고로 우려
하고 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아
픔을 계기로 더욱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고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군이 되
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군대가 되었으
면 한다.

이런 국민의 군대로 발전하기 위해
는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 분야는 포교, 상담, 봉사위원 등에 나
서고 있다. 군종교구에서는 이미 일선
군종법사에게 상담 등의 활동을 강화하
라는 지침을 내린 바있다. 힘든 상황의

장병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상
황을 이겨내는 또 다른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불자들이 더욱
모아주길 당부드린다. 특히 초임장교,
신병들을 보살피는데 나서주었으면 한
다. 조계종 군종교구에서는 최근 이들
을 대상으로 위문 및 격려 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 자원봉사 등에 동참해 준다
면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군대 내의 불자장병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
다. 군종병들을 비롯한 불자 장병들이
전역 후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신
행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화된 군
법당 보수 등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십시일반 힘이
필요하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이, 선조
들이 지켜온 역사와 전통을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하나로 일치된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강하게 염원해 본다. 또 따
뜻한 불심으로 인해 지켜있는 그들이 심적
으로도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

몸·정신 모두 건강한 군인 되도록 돕자



예순 여섯번째
국군의 날을 맞이
하여 이은상 시인
의 ‘그대 왜 거기
서 있나’를 읊어본
다. 조국을 위해
여기 있다는 이 시
는 필자가 근무하
고 있는 제5보병
사단 열쇠전망대에 자랑스럽게 세겨져
있다. 늘 이곳에 갈 때마다 소중한 조국
을 생각하며 군인으로서 또 성직자로
서 장병들과 늘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곤
한다.

66번째 생일을 맞는 국군의 날, 이 시
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올해 유난히 군
에 자식을 보낸 많은 국민들을 마음 졸
이게 하고 격정스럽게 한 일들이 많았
기 때문이다.
특히 분신 같은 자식을 군에 보낸 부
모들은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예민
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뀌고 있다.
병영문화의 획기적 쇄신이라는 큰 변혁
의 흐름이 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필

자 역시 군종장교로서 입대한 아들들과
늘 같이 호흡하며 몸과 정신 모두 건강
한 진짜사나이로 거듭나게 도울 것이
다. 그리고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충실
히 이행하고 늘름한 모습으로 전역할
날을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오늘도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데 여
념없는 우리 국군 용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평화의 전사(戰士)이며 국토수호의
금강역사(金剛力士)인 대한의 건아들
이여, 오늘의 이 경험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국가를 지
킨다는 게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고 실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들의
군대 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숙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미
래의 큰 자산으로서 오늘의 군생활은
반드시 그대를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
이다.”

그렇다, 대한민국 군인은 나라를 위
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모든 부대의 평
안과 무사고를 간절히 기도한다. 대한
민국 국군 파이팅!

社說
법인 특성 살린 ‘法개정’ 필요하다

9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조계종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 17곳 가운데 9곳
이 종단에 법인을 등록했다. 사찰보유법인 6
곳과 사찰법인 3곳 등 총 9곳이다.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사찰보유법인 3곳을 포함해 8
곳이다.

사찰보유법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선
학원과 법보선원은 결국 등록하지 않았다.
또 조계종 여장인 동주 스님이 이사장인 ‘대
한불교조계종 보리동산’도 역시 마찬가지
다. 사찰법인 가운데도 능인선원, 세등선원,
육연선원, 만불회, 송산국제선원도 미등록
상태다.

특히 사찰보유법인 가운데 조계종 창종의
모태인 선학원과 조계종 정신적 지주이자
현대 한국불교의 최고 어른으로 꼽히는
송담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법보선원이
등록하지 않고 탈종과 제적원까지 낸 일은
조계종 입장에서 큰 상처로 남게 됐다.
조계종 측은 이번 법인관리법 등록 결과

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법정정 과정에서 법
인들의 특성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법인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추후 법인과 협
의하면서 각 법인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으며 법
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입법미비사
항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법
인관리법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외에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충분히 제
기될 수 있다. 규모가 큰 법인인 대각회에는
이행합의서를 통해 등록을 유도 했지만,
나머지 군소 법인에 대한 요구조건에 귀를
기울이는데는 미온적이었다. 종단은 이번 결
과를 교훈 삼아 법인법에 대한 재정비는 물
론 미등록 상태인 법인들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12월 31일
까지 등록할 나머지 법인들도 동참할 것이
다. 현행 법인관리법만 내세워서는 등록을
할 법인이 많지는 않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불교 ‘신행 약체’로 남을 건가

불교를 흔히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적
지 않는 불자들은 기복과 구원을 위한 신앙
이 아닌 수행을 통한 참나를 찾는 과정이 있
는 불교가 고등종교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율을 지키는 것도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수
행을 하는 것도 다른 종교보다 훨씬 뒤쳐진
다. 이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최근 발
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계율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종교 신자
중 대부분이 개신교(49.5%)였고, 가톨릭
(40.9%)과 불교(21%)가 뒤를 이었다. 경전
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종교 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도 개신교(37.8%)였
다. 불교 신자 응답률은 7.9%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자기 종교에 대한 만족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이는 2011년 불교사회연구소
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같은 질문에서도 나
타났다. 당시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질문해
불자의 38.5%만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
면, 가톨릭은 53.5%, 개신교는 58.1%가 만
족함을 나타냈다. 개신교를 제외한 두 종교
신도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사회 발전에 기여도
가 높은 종교로 국민들은 불교(30.2%)를 꼽
았다는 점이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각종
사회 참여 운동으로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간화
선 대중화 등 조계종에서 여러 가지 대책은
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
고 있다. 수행과 포교에 대한 불교의 양 날개
다. 이번 여론조사는 두 날개가 갈 곳을 잃었
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불교의 변화가 필
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엔터테인먼트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엔터테인먼트 www.hyunbulnews.com 쇼핑몰엔터테인먼트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이 게 정말 가능해?” ‘자아실현교실’ 개강 안내

강호 현인, 기사, 이인께 알립니다.

저 고복자 호사는 지난 15년 전부터 ‘육임강의록’ 등 육
임학술서와 ‘육임래정비법’ 등 육임활용서를 많이 써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왔고, 이를 ‘호사학인천역집 I·
II·III’ ‘호사기결’ 등 육임CD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해 더
큰 애호를 받아오던 중 지난 2012년에 이르러 ‘미국동양
학대학교’ (교교미필자·대학입학인증/학사/학사단축/석
사/석박통합/박사과정)를 설립해 한국, 중국, 독일에 진
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번 교육당국으로부터 제가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
넷신문방송 진실보도 만인보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인가
받아 오는 9월 1일부터 ‘자아실현교실’을 열고, 아래 내
용의 육임술을 단기간에 ‘진검승부적’으로 인도해 드릴
작정입니다.

학(學)이 아닌 술(術)은 오래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육임항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
하시면 육임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3개월에 그
진수를 충분히 인도해드릴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매우
익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육임의 진수를 얻어 가십시오!
더도 덜도 아닌 3개월입니다!

수강신청 과목

- ① 육임귀신술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귀신을 보는곳
나. 작사귀와 병 귀 구별법
다. 해소시절 개소 및 물건 지적, 또는 해소 가능여부와 수법 효과여부 판단법
라. 불제 등 제거 방법(부적/제례) 실기 시범 등
- ② 육임사주감정술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육임가정법으로 일생의 대별 즉각 판단술
나. 육임장법으로 일생 행로 즉각 판단술
다. 육임기공법으로 일생 초, 중, 말년의 복분과 육친관계 즉각 판단술
라. 육임공방법으로 일생 운영 및 육친 기복여부 즉각 판단술 등
- ③ 육임풍수 묘지속판단술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 묘지에 물이 찻는가? 배 구덩이인가? 뼈가 뒤집어져 있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등
나. 이 묘지가 자신에게 어떤 탈을 부리는가? 무슨 이로운을 주는 가?
다. 이 묘지의 1대, 2대, 3대, 4대, 5대의 생업과 흥망성쇠 및 그 연유는?
라. 이 묘지의 육친은 조, 부, 모 형제자매 누구며, 이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해야 하나? 그대로 두어야 하나?
마. 육임 명당술 및 후손의 천부적 직업 교시술 등

- ④ 육임주식매매적기(滴期)술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언제, 어떤 종목의 주식을 얼마큼 사면 이익이 될 것인가?
나. 지금 팔까? 언제까지 갖고 있을까? 최고로 오르내릴 시기는 언제인가? 등
- ⑤ 육임부동산매매시(時期)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내 집, 내 땅이 언제 팔릴까?
나.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인가? 더 갖고 있으면 오를 것인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등
- ⑥ 경매, 낙찰 성공술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 3개월 / 50만원 / 교재 프린트
가. 이번 경매낙찰에 성공하겠는가? 실패하겠는가?
나. 낙찰 경매에 성공할 금액은 얼마인가?
다. 현장에 누구(따)를 지정해 보내야 할 것인가? 직접 참여해야 하겠는가? 등
- ⑦ 위 전체과목 수강은 200만원입니다.
- ⑧ 신형 절차
검색형 미국동양학대학교 검색 / 첫 창 우측 상단 ‘평생교육원’ 클릭 등록
입금계좌 : 외환은행 630-008387-338 미국동양학대학교
9월 1일 저녁 위 해당과목부터 개강 함.
단, 자기 자신의 방향성에 고민하는 분, 또 치열하게 습득하실 분들만 오십시오.
저와 아내가 박사께서는 위 내용에 한해서만은 여러분을 ‘프로’로
인도해 드릴 것을 자신 있게 약속 드립니다.

강사 : 육임가 고복자 호사



02)738-8680

만인보 부설 평생교육원 ‘자아실현교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3 미국동양학대학교 1층 강당